아르헨티나 경제의 현재와 2027년 전망

한인 사회를 위한 경제 해설 자료 | 2026년 11월

경제학자 리카르도 아리아수(Ricardo Arriazu)의 2026년 11월 5일 강연에서 제시된 경제 쟁점을 토대로 구성한 독립적인 교육용 해설입니다. 원래의 비공개 발표자료를 번역하거나 복제한 문서는 아닙니다. 수치와 전망은 강연에서 제시된 추정치이며 별도의 검증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리카르도 아리아수는 아르헨티나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온 저명한 경제학자입니다.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그의 조언을 듣는다는 주장은 이 자료에서 독립적으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서는 특정 정치 세력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1. 아르헨티나의 장기적인 경제 문제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까지 아르헨티나는 농산물에 대한 세계적 수요, 이민, 무역 개방, 제도 발전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강연에서 소개된 역사적 추정에 따르면 1910년 1인당 소득은 세계 평균의 약 3배였고 제조업이 국내총생산(GDP)의 약 24.5%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반복된 인플레이션, 정책의 급격한 변화, 제도에 대한 신뢰 약화, 낮은 저축률, 장기 금융 부족 등이 성장의 장애 요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GDP란 한 나라에서 일정 기간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의 부가가치 합계입니다. 국가 전체 GDP가 늘더라도 모든 가계와 기업의 소득이 함께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2. 왜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달러를 선호할까?

아르헨티나는 일상 거래에는 페소를 사용하지만 저축이나 부동산 가격을 생각할 때 달러를 기준으로 삼는 '이중통화 경제'의 성격이 강합니다. 반복된 평가절하와 물가 상승으로 페소에 대한 신뢰가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강연에서 제시된 계산에 따르면 2003년 이후 달러 매입 규모는 약 4,300억 달러로 추정됩니다. 이 중 약 2,630억 달러는 공식 기록, 약 1,700억 달러는 비공식 거래 추정치입니다. 이는 장기간 누적된 추정이며 현재 보유액이나 해외 유출액과 동일한 뜻이 아닙니다.

아리아수는 달러화(페소를 달러로 대체하는 제도)에 원칙적으로 호의적이지만, 이를 시행하려면 약 700억 달러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추정했습니다. 이는 정책 제안과 필요 재원에 관한 그의 판단이지 확정된 정부 계획이 아닙니다.

3. 농업·석유·가스·광업이 제공하는 기회

세계의 에너지 수요, 전기화, 데이터센터 확대, 미국과 중국의 경쟁은 아르헨티나의 식량·에너지·광물 자원에 새로운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바카 무에르타의 석유와 가스, 리튬과 구리, 농업 생산성이 중요합니다.

강연에 소개된 장기적 잠재력 또는 목표치는 농산물 생산량 6,000만~7,000만 톤 추가 확대, 석유 하루 200만 배럴, 탄화수소 수출 약 420억 달러, YPF 관련 수출 목표 580억 달러, 액화천연가스 프로젝트 1,200만~1,800만 톤, 산후안 지역 RIGI 신청 투자 약 250억 달러, 광업 수출 약 350억 달러입니다.

이 수치들은 서로 다른 사업·기간·범위를 가리킬 수 있으므로 합산해서 미래 연간 수출액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인프라, 수송시설, 투자금, 허가, 장기적인 법적 안정성이 필요하며 특히 광산은 개발에서 생산까지 긴 시간이 걸립니다.

4. 수출 부문은 성장하는데 왜 내수 경제는 정체될까?

강연에서 제시된 2026년 수치에 따르면 농업 수확량은 약 18%, 농업 생산은 약 21%, 석유 생산은 약 16% 증가했고 광물 수출액은 약 30억 달러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아리아수는 이런 호재를 감안하면 경제성장률이 약 5~5.5%에 이를 잠재력이 있다고 보면서도 실제 성장률은 약 1% 또는 그 이하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농업과 자원산업의 호황이 곧바로 도시의 소매업,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의 호황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자원산업은 큰 수출액을 창출해도 고용과 지역 소비에 미치는 효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성장률 차이는 강연자의 해석으로, 부문별 GDP 기여도를 재계산한 검증 결과는 아닙니다.

5. 국채 발행이 왜 민간 소비와 대출에 영향을 주는가?

정부가 만기 도래 국채를 갚기 위해 새 국채를 발행하는 것을 차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기 상환액보다 더 많은 새 국채를 발행해 은행과 투자자의 자금을 끌어오면 민간 대출에 쓸 수 있는 자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아리아수는 이 방식으로 약 18조 페소가 시장에서 흡수되었다고 추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만기 3조 페소를 상환하면서 4조 페소를 새로 발행하면 차액 1조 페소만큼의 자금이 일시적으로 정부로 이동합니다. 다만 실제 통화량과 대출 효과는 중앙은행의 대응, 정부 지출, 채권 매입 주체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의 제안은 적어도 만기 상환액을 넘는 차환을 줄여 은행이 기업과 가계에 더 많이 대출하고 금리를 낮출 여지를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반대로 유동성을 너무 빠르게 풀면 달러 매수 수요가 커질 수 있다는 정책상의 딜레마도 있습니다.

6. 외환보유액과 2027년 환율 불안

외환보유액은 중앙은행이 보유한 외화자산입니다. 총보유액, 순보유액, 실제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유동성 보유액은 서로 다릅니다. 강연에서는 미국과의 스와프를 제외하고 즉시 활용 가능한 보유액을 400억 달러 조금 넘는 수준으로 추정했습니다.

2027년 선거를 앞두고 페소에서 달러로 자금이 이동하는 '환율 급등 압력'이 발생하면 약 300억 달러의 달러 수요가 생길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이는 실제 중앙은행이 300억 달러를 반드시 매도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환율 조정, 민간 공급, 금리 정책, 외환시장 제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강연은 정부가 조기에 환율을 방어하는 방식, 평가절하를 허용하는 방식, 개입하지 않고 자유롭게 변동시키는 방식, 환율 밴드 상단에서만 개입하는 방식의 네 선택지를 논의했습니다. 밴드 상단까지 기다릴 경우 약 26%의 평가절하와 초기 약 15%의 물가 상승 전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추정도 제시했습니다.

7. 공식 환율과 MEP·CCL·블루 달러의 차이

공식 도매 외환시장 환율(MULC)은 합법적인 무역·금융 거래의 기준이 되는 환율입니다. MEP는 국내 증권 거래를 통해 형성되는 달러 환율, CCL은 증권을 이용한 해외 자금 이전에 관련된 환율, 블루는 비공식 현금 달러 환율을 가리킵니다.

'환율 격차'는 예를 들어 공식 환율이 1,600페소이고 CCL이 1,920페소라면 (1,920÷1,600 1)×100 = 20%입니다. 공식 환율이 크게 오르더라도 금융시장 환율이 비슷하게 오르면 격차는 거의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 해설을 위해 설정한 조건부 예시이며 아리아수의 수치 전망이 아닙니다. 조기 방어가 성공할 경우 MEP·블루 격차 0~5%, CCL 3~10%; 관리된 평가절하의 경우 MEP·블루 5~15%, CCL 10~25%를 가정할 수 있습니다. 자유변동에서는 공식 환율과 시장 환율이 수렴해 격차가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환율 위기에서는 격차가 확대될 수 있지만 정확한 크기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8. 인플레이션, 경쟁력, 금리

페소가 평가절하되면 수입품과 수입 원자재의 페소 가격이 오르고, 그 일부가 소비자물가에 반영됩니다. 그러나 환율이 26% 상승한다고 모든 물가가 26%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환율의 물가 전가율은 시장 경쟁, 임금, 기대 인플레이션, 정책 대응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리아수는 반복적인 평가절하만으로는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개선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세금, 노동, 금융, 규제, 물류, 인프라 비용 등 구조적 요인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고금리가 오래 지속되면 재고 자금 조달과 소비자 할부 구매가 어려워져 내수에 부담을 줍니다.

9. 국가위험도와 공공부채: 숫자를 읽는 방법

국가위험도는 국제 투자자가 해당 국가의 채권에 요구하는 추가 수익률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강연에서 언급된 아르헨티나의 약 850bp는 대략 8.5%포인트의 추가 위험 프리미엄을 뜻하며, 우루과이의 100bp 미만과 비교되었습니다. 이 값은 강연 당시 언급된 수치입니다.

강연은 부채를 측정하는 기준에 따라 GDP 대비 약 79%, 총부채 약 62%, 공공부문 내부 채무를 제외한 약 37%, 시장성 부채 20% 미만이라는 서로 다른 비율을 제시했습니다. 이들은 같은 정의의 지표가 아니므로 하나만 골라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재정 균형이 중요하지만 정부가 채무를 이행할 것이라는 시장의 신뢰가 함께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신뢰가 개선되면 차입 금리가 낮아져 투자와 장기 금융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0. 선거, 정책 연속성과 투자

선거를 앞두고 향후 경제정책이 바뀔 수 있다는 예상이 커지면 기업과 가계는 미리 달러를 사거나 투자를 미룰 수 있습니다. 아리아수는 이를 아르헨티나의 반복적인 정책 '진자 운동'과 연결해 설명했습니다.

강연에서 그는 경제정책 과정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자신의 평가가 약 6개월 전 50%를 조금 넘던 수준에서 약 40%로 내려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특정 후보의 재선 확률이 아니라 경제정책 과정에 대한 그의 주관적인 평가입니다.

경제 전망과 정치 전망은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 선거 결과는 물가, 고용, 실질임금, 정부 신뢰, 야권의 구성 등 여러 요인에 따라 결정됩니다. 경제 지표만으로 당선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11. 시장 개방과 RIGI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

시장 개방은 수입 경쟁을 늘려 소비자의 선택권과 일부 품목의 가격을 개선할 수 있지만, 기존 제조업체의 매출과 고용에는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강연은 기업 폐업과 일자리 감소가 새로운 산업의 투자 및 고용 창출보다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RIGI는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입니다. 아리아수는 투자 안정성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하면서도 중소 규모 투자와 일반 기업에도 장기적 예측 가능성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한인 기업에 중요한 것은 업종별로 위험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에너지·광업·인프라 관련 공급업체에는 새로운 수요가 생길 수 있지만, 내수 중심 유통·제조업은 소비 위축과 자금조달 부담을 겪을 수 있습니다.

12. 일반 가정과 한인 사업자가 살펴볼 지표

가정은 실질임금(물가를 반영한 임금), 고용, 대출 금리, 식료품·주거비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는 매출액뿐 아니라 판매수량, 재고회전, 매입 원가, 금융비용, 대금 회수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수입업체는 공식 환율과 MEP·CCL의 격차만 보지 말고 수입 규정, 세금, 인증, 결제 가능 여부, 공급업체 조건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환율 격차 확대가 불규칙한 거래를 자동으로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합법적인 수입업체의 비용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2027년의 핵심 질문은 정부가 민간 신용과 소비를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페소에 대한 신뢰를 유지할 수 있는가입니다. 수출 확대가 경제 전체의 성장을 돕더라도 그 혜택이 가계와 중소기업에 전달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자료의 성격과 유의사항

본 문서는 2026년 11월 5일 발표에서 논의된 경제 쟁점을 이해하기 쉽게 재구성한 공개 교육용 원고입니다. 비공개 원문 전체를 번역한 것이 아니며, 발표자의 모든 발언을 직접 인용한 것도 아닙니다. 제시된 수치와 예측은 독립 검증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환율 격차에 관한 예시 범위, 설명용 계산, 가계 및 기업을 위한 실무적 해설은 작성자가 추가한 내용으로, 리카르도 아리아수의 직접적인 전망과 구분해야 합니다.

추가 핵심 장: 2027년 환율 불안과 네 가지 대응 시나리오

이 장은 2026년 11월 5일 리카르도 아리아수(Ricardo Arriazu) 경제학자 발표 요약문 3~5쪽에 기재된 환율 위험과 정책 선택지를 일반 독자에게 설명하기 위해 새로 작성한 해설입니다. 원문에 없는 환율 격차 수치는 별도로 구분했습니다.

왜 2027년에 환율 불안이 문제가 되는가?

아르헨티나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경제정책이 바뀔 수 있다는 불안이 커지면, 가계와 기업이 페소를 달러로 바꾸려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를 흔히 '달러 쏠림' 또는 외환시장 불안(환율 급등 압력)이라고 부릅니다. 아리아수는 이런 상황에서 달러 수요가 약 300억 달러에 이를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확정적인 예측이 아니라 위험 규모에 관한 가정입니다.

그는 미국과의 통화스와프를 제외한 가용 유동성 외환보유액을 400억 달러 조금 넘는 수준으로 추산하면서도, 실제로 얼마나 적극적으로 보유액을 사용할지는 정부의 정책적 결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보유액이 있다고 해서 시장 불안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알아둘 용어

- MULC(공식 도매 외환시장 환율): 수출입 및 금융 거래에서 기준이 되는 공식 달러 환율입니다.
- MEP 달러: 국내 증권 거래를 통해 형성되는 달러 가격입니다.
- CCL 달러: 증권 거래를 통해 해외로 자금을 이전할 때 참고되는 달러 가격입니다.
- 블루 달러: 비공식 현금 달러 시장의 가격입니다.
- 환율 격차(brecha): (병행시장 환율 ÷ 공식 환율 1) × 100입니다. 예를 들어 공식 환율 1,600페소, CCL 1,920페소라면 격차는 20%입니다.

시나리오 1 | 정부가 조기에 개입하여 페소를 방어

정부 또는 중앙은행이 시장 불안이 커지기 전에 외환시장에 개입하고, 필요하면 금리를 올리거나 페소 유동성을 줄여 달러 수요를 억제하는 방식입니다. 환율 급등과 단기 물가 충격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리가 높아지면 가계의 할부 구매와 기업의 운전자금 조달이 어려워져 소비와 생산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일반 가정의 관점에서는 "달러는 상대적으로 안정되어도 대출이 비싸고 일자리가 불안해지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아리아수의 발표 요약문은 조기 개입을 네 가지 선택지 중 하나로 제시하지만, 이 경우의 정확한 환율이나 금리를 수치로 예측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가지 시나리오: 나머지 세 가지 선택

시나리오 2 | 공식 환율을 평가절하

정부가 공식 달러 가격을 더 높은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수출기업은 달러 수입을 더 많은 페소로 환산할 수 있지만, 수입품·원자재·부품의 페소 가격이 오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격 상승이 식료품, 가전제품, 운송비와 서비스 요금에 전파되면 실질임금과 구매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공식 환율이 20% 상승한다고 해서 병행시장과의 격차가 반드시 20% 커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MEP와 CCL도 함께 오를 수 있고, 반대로 공식 환율이 병행시장 수준에 가까워지면 격차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시나리오 3 | 중앙은행이 개입하지 않고 환율을 자유롭게 변동

정부가 달러 매도 등 직접 개입을 하지 않고 수요와 공급에 따라 환율이 움직이도록 허용하는 방식입니다. 시장 불안이 크면 공식 달러 가격이 급격히 오를 수 있습니다. 이후 새로운 균형이 형성될 가능성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수입가격 상승, 물가 불안, 기업의 가격 책정 중단, 소비 지연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공식 환율과 병행시장 환율이 함께 움직이며 격차가 작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큰 평가절하 = 큰 환율 격차'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시나리오 4 | 환율이 변동 범위의 상단에 도달한 뒤 개입

정부가 환율이 허용된 밴드의 상단에 이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수준에서 방어하는 방식입니다. 아리아수의 발표 요약문은 이 경우 약 26%의 평가절하와 약 15%의 초기 물가 전가가 발생할 수 있고, 이후 추가적인 물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수치는 해당 시나리오에 대한 발표자의 추정치이며, 연간 물가상승률이 정확히 15% 또는 48%가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미 가격이 오른 뒤에 금리를 올려 환율을 방어한다면,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가 동시에 나타날 위험이 있습니다. 다만 발표 요약문은 네 시나리오 각각의 발생 확률이나 경제성장률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아리아수의 핵심 메시지

발표자는 환율 불안이 발생한 뒤 어떤 대응을 선택할지보다, 경기 회복·물가 안정·신뢰 회복을 통해 애초에 달러 쏠림을 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선거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자금이 달러로 이동하면, 금리 상승과 물가 충격을 통해 2027년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전환될 위험도 지적했습니다.

공식 환율과 병행시장 격차: 추가 시나리오 분석

아래 표는 아리아수의 발표 자료에 포함된 수치가 아닙니다. 앞선 경제 분석 대화에서 제시한 가정적·조건부 격차 범위를 설명용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환율을 예측하는 통계모형의 결과가 아니며, 환율제도·외환규제·시장신뢰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책 대응	MEP/블루 격차	CCL 격차
1. 조기 방어 성공	0~5%	3~10%
2. 관리된 평가절하	5~15%	10~25%
3. 개입 없는 자유변동	수치 예측 어려움	수치 예측 어려움
4. 밴드 상단에서 방어	10~30% (불안 시)	15~40% (불안 시)

왜 수입품 가격과 국내 제조업에 중요한가?

불법적인 저가 신고(언더인보이싱)가 의심되는 수입품이라도 실제 대금의 일부를 병행시장 달러로 조달한다면, 환율 격차가 커질수록 해당 부분의 페소 비용이 올라갑니다. 그러나 격차가 5~15% 정도라면 매우 큰 신고가격 차이를 상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높은 격차는 정상적인 수입기업의 비용도 올리고 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단순 예시: 실제 가격이 100달러인 물품을 10달러로 신고하고, 나머지 90달러를 병행시장에서 조달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공식 환율이 고정되어 있을 때 병행시장 프리미엄이 10%이면 전체 환전 비용은 격차가 없는 경우보다 9% 높아지고, 프리미엄이 30%이면 27% 높아집니다. 이는 계산 예시일 뿐, 실제 거래 방식이나 위법 사실을 확인한 것이 아닙니다.

핵심적으로, 환율 격차가 벌어지는 것만으로 저가 신고나 밀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관세평가·제품 안전 인증·사후 시장감독의 실효성이 별도로 중요합니다.

독자를 위한 결론

2027년에는 환율이 얼마나 오르는가뿐 아니라, 공식 환율과 병행시장 환율이 서로 얼마나 벌어지는지, 금리가 어떻게 변하는지, 물가 상승이 실질소득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달러 안정이 곧 소비 회복을 뜻하지 않으며, 환율 급등이 곧 환율 격차 급등을 뜻하지도 않습니다.

출처와 주의: 2026년 11월 5일 KOTRA-FACIMEX 행사 관련 비공개 발표 요약문을 바탕으로 작성한 교육용 해설입니다. 발표자에게 귀속된 수치는 독립적으로 검증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서는 발표문 원문이나 발표자의 공식 승인 번역본이 아닙니다.